

강원도 농어촌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최 대 옥

<강릉간호전문학교>

차례

I 서 론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 조사 지역

(2) 조사 연령 및 대상자 수

(3) 경제 상태

2) 연구 방법

III 조사 성적 및 고안

1)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

2) 보전에 대한 지식 및 실천 상태 조사

IV 총괄 및 결론

참고문헌

I. 서 론

오늘날 우리는 건강이란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들 막론하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사실,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개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그 사회에, 또 그 국가에, 더 나아가 전 인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UN의 보건부문의 전문기관인 WHO가 1946년 6월 New York에서 개최된 보건현장에서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을 유지하며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관리에 보다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건강이란 그 국가의 커다란 재산이라고 본다 하겠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강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만을 생각하는데 건강은 선천적으로 건강한 소질을 가지고 출생했을 지라도 후천적 생활조건과 생활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체질 체력 성격 지능등이 원만한 상태에 있을 때를 건강이라 하겠다.

건강과 비건강에 대해 미국 Wood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 보전에 커다란 밑받침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더욱 높아 국민의 보건복지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행정 기관인 보건소는 국민의 내부에까지 침투되어 그 기능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전에 대한 개념이나 개인위생에 대한 국민의 실천도는 낮다고 보겠기에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실제적인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건강한 국민이 될수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때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 조사 지역

조사 지역으로는 강원도 강릉시와 명주군을 택하였는데 강릉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을 생각해 강릉 시내에 속하는 7개 동을 도시로 정하고 시내에서 6km이상 떨어진 해변가에 속하는 3개 동을 어촌으로 정하였으며 명주군 중에서는 2개 면을 선택해 농촌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 연령 및 대상자 수

조사자 연령은 20세에서 55세 이전의 부인으로 자녀가 1명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 어촌 농촌으로 구분하여 질문지는 각각 150장씩 배부하였으나 누락자와 기제가 불확실한 것은 없었고 각각 100명씩으로 전체 300명이며 각 분포 연령은 <표 1>에서와 같다.

(표 1) 조사 연령 및 대상자 수

	N		
	도 시	어 촌	농 촌
20~30세	23	8	9
31~40세	34	41	42
41~50세	42	42	44
51~55세	1	9	5
Total	100	100	100

(3) 경제 상태

가정의 생활 정도를 상 중 하로 나누어 봤을 때 도시와 농촌의 상류가 동일하지 않겠지만 부인 자신이 대답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전체에서 상이 3%, 중이 72%, 하가 25%로 나타났다.

(표 2) 경제 상태

	N(%)			
	도 시	어 촌	농 촌	Total
상	5	2	4	11(3)
중	80	76	59	215(72)
하	15	22	37	74(25)
Total	100	100	100	300(100)

Note; %기계가 없는 것은 인원과 동일함.

2) 연구 방법

조사 기간은 73년 6월 5일~30일까지 25일간 실시 하였으며 본 조사서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지 개개인에게는 조금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켜 정확한 내용이 나오도록 하였다.

연구, 검사 실시전에 충분한 사전주의를 하여 Pre-Survey를 실시한 결과 강릉 시내에서는 가능하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한글 해독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설문지 작성 방법을 몰라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기에 아래와 같은 방법을 택하였다.

(1) 강릉 시내에서는 간호전문학교 학생에게 미리 기제 방법을 이해시켜 한 학생이 2~3명의 부인을 직접 만나 면담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2) 농어촌 지역은 그지역에 살고 있는 간호 학생 수가 적어 그지방의 구민학교 교장선생님의 협조아래 일반선생님중 본조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을 택해 6학년 학생들에게 조사표를 배부하여 작성 방법을 이해시킨 후 학생 자신이 어머니와 면담하여 직접 기재란에 기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III. 조사 성적 및 고안

1)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

(1) 건강 상태

건강에 대한 정의는 앞에 서론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하였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건강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거의 대부분이 육체적인 아픈 상태를 말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통이라고 대답하는 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시가 51%, 어촌이 46%, 농촌이 44%로서 도시가 가장 많은 율을 보였다.

병중이라고 하는 경우는 도시 11%에 비해 어촌 12%, 농촌 16%로 나왔는데 이러한 원인은 도시보다 농어촌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나쁘며 또한 질병에 걸렸다 해도 지리적인 조건이나 경

제적인 문제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건강 상태

	N(%)			
	도 시	어 촌	농 촌	Total
건강하다	17	20	18	55(18)
보통이다	51	46	44	141(47)
약하다	21	22	22	65(22)
병중이다	11	12	16	39(13)
견 령		3	2	5(1.7)
위장장애	5	4	4	13(4.3)
기관지천식	2	1	3	6(2)
빈 혈	3	4	5	12(4)
간장질환	1		2	3(1)
Total	11	12	16	39(13)

이것은 김¹⁾이 조사한 경기도 고양군에서 나타난 건강하단의 84.2%와 보통이다의 2.4%, 병중이다외에 9.0%에 비해 훨씬 낮은 결과라 하겠다.

조사 당시 병중인 사람에서 부터 건강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어디가 가장 아픈가를 조사해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허리가 아프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시가 30%, 어촌이 33%, 농촌이 3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시는 다리와 배가 같은 19%이

〈표 5〉 치 료 장 소 및 기 간 (%)

	치 료 장 소							치료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진료받나?			
	집에서	병 원	보건소	약 국	기 타	Total	네	아니오	기 타	Total	
도 시	25	31		41	3	100	38	44	18	100	
어 촌	30	18	4	39	9	100	30	52	18	100	
농 촌	49	15	6	21	9	100	21	60	19	100	

Note: ·치료장소에서 기타는 절 동 임.
·완치여부에서 기타는 배에 따라 결정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중도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② 치료 여부

질환에 이환시 완치될때까지 치료하는 부인은 전체에서 반수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를 조사하여 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전체에서 돈이 없다가 우위를 차지하였고 도시는 시간이

고 어촌은 머리 배 다리가 같은 18%이고 농촌은 머리와 다리가 같은 22%이다.

〈표 4〉

	N(%)		
	도 시	어 촌	농 촌
허 리	25(30)	27(33)	26(30)
머 리	14(17)	15(18)	19(22)
배	16(19)	15(18)	7(8)
가 슴	9(11)	8(10)	11(12)
다 리	16(19)	15(18)	19(22)
기 타	3(4)	2(3)	5(6)
Total	83(100)	82(100)	87(100)

이러한 증상은 병중인 사람에게 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때로 아플때가 있다는 것으로 판명된다.

(2) 치료에 대하여

① 치료 장소 및 기간

일반적으로 질환에 이환 되었을때 치료를 받는 장소 및 기간을 조사하여 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도시에서는 약국 41%, 병원 31%의 순위이고 어촌은 약국이 39%, 집에서가 30%이고 농촌은 집에서가 49%인 가장 높은 율을 보였다. 또한 보건소 이용도에 있어서 도시보다 농어촌이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가까이 위치한 보건지소를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없다는 부인이 농어촌보다 높은 16%를 차지했으나 농어촌은 거리 관계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치료를 하는 경우 병 정도가 매우 아파야 한다는 부인이 도시 51%, 어촌 63%, 농촌 76%를 차지했다.

③ 미신에 관련된 치료 여부

(1) 김모임 외 2인 : 보건간호 실습제학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학회지 pp. 17

〈표 6〉

치 료 여 부

N(%)

	치료받 못 받는 이유			치료받 하는 경우 병의 정도			
	도 시	어 촌	농 촌		도 시	어 촌	농 촌
돈이 없어서	42(66)	51(72)	64(81)	약간 아파도 간다	26	13	11
시간이 없어서	10(16)	4 (6)	5 (6)	중간정도 아파야 간다	23	24	13
거리가 멀어서	2 (3)	6 (9)	7 (9)	매우 아파야 간다	51	63	76
기 타	8(15)	9(13)	3 (4)				
Total	62(100)	70(100)	79(100)	Total	100	100	100

Note: % 기제가 안된 것은 인원과 동일함.

고도로 발달된 현대 의학을 인간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의학을 외면하고 옛 부터 내려온 미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해 조사를 하여 본 결과〈표 7〉에서와 같이 농어촌은 굶을 한다가 각각 2%이고 절을 친다가 도시 3%, 어촌 12%, 농촌 7%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어촌이 더 성행하는 이유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에 미신에 대한 관념이 더 깊다고 하겠다.

이것은 이 연구가 조사한 경기도 부천시와 경기도를 합친 4명보다 더 많은 율을 나타냈다.

〈표 7〉 미신에 관련된 치료방법

(%)

	도 시	어 촌	농 촌
굶을 한다		2	2
절을 친다	3	12	7
빌기만 한다	1	7	7
절히 안한다	96	79	84
Total	100	100	100

Total : 인원과 %가 동일함.

2) 보건에 대한 지식 및 실천 상태 조사

(1) 보건소에 대한 인식 정도

① 보건소 기능과 알게 된 동기

〈표 8〉

보 건 소 기 능 과 알 게 된 동 기

(%)

	예방주사	F P	결핵사업	이상모부	드론다	Total	다독이	보소간원	이웃사람	기 타	Total
도 시	17	14	1	64	4	100	26	25	27	22	100
어 촌	35	10	10	35	10	100	25	23	30	22	100
농 촌	51	11	3	27	8	100	18	22	36	24	100

Note: %와 인원이 동일함.

보건소 기능에 대해 예방주사 가족계획 결핵 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표 8〉에서와 같이 조사하여 본 결과 모두 실시한다가 도시 64%, 어촌 35%, 농촌 27%로 나타났는데 농어촌은 예방주사를 맞는 기관이라고 답한 율이 더 많은 숫자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계몽해야 하겠다. 또한 보건소를 알게 된 동기도 이웃사람을 통해서가 가장 많다.

② 보건소 이용도

〈표 9〉에서와 같이 보건소를 일년에 몇회나 이용하는가를 조사하여 본 결과 이용 안한다

가 도시 어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2회 이내인 것으로 도시가 35% 어촌이 39%이나 농촌은 2회이내 사용이 가장 높은 40%를 차지 하였다.

〈표 9〉 보 건 소 이 용 도

N(%)

	도 시	어 촌	농 촌	Total
이용 안한다	52	40	28	120(40)
년 2회 이내	35	39	40	114(38)
년 5회 이내	11	12	18	41(14)
년 7회 이내	2	3	5	10(3)
년10회 이내		6	9	15(5)
Total	100	100	100	300(100)

(2) 이계희, 일부 농촌지역의 진료비로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연구, 간호학회지

(2) 예방주사

① 예방주사에 대한 지식 및 실천

인간은 출생시 모체로부터 면역체를 갖고 태어나는 것과 출생후 즉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즉 면역체를 갖지 않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자녀들에게 필요한 더피티 소아마비 중두 비씨지 홍역 이상 다섯 종류를 질의해 본 결과 <표 10>에서와 같이 반수 이상이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필요없다가 전체에서 2% 나왔다.

실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맞은 종류는 중두로 26%이고 그 다음이 BCG 22%, 소아마비 21%가 전체에서 나왔다.

(표 10)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 및 실천

N(%)			
신	천	지	식
D P T	84(14)	꼭 맞아야 한다	260(87)
소아마비	125(21)	필요없다	7(2)
홍역	98(17)	맞아도 되고 안맞아도 된다	8(6)
중두	145(26)	예를만 맞는다	9(3)
B C G	133(22)	모른다	6(2)
Total	585(100)	Total	300(100)

Note; ·실천에 있어서 불이상 응답했음.
·실천 종류가 기억 안나는 사람은 자녀에게 질의해 응답했음.

이것은 김¹¹⁾이 조사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천에 으뜸인 소아마비 BCG중두의 순서와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왔으며 지식에서 모르겠다는 김¹¹⁾이 조사한 34.4%에 비해 훨씬 좋은 6%로 나타났다.

② 자녀에게 접종한 예방주사에 대한 기억 여부
예방주사에 대한 필요성은 위에서와 같이 인

(표 12) 이유시기 및 모유를 떼는 시기에 대한 지식

	모 유 를 떼 는 적 당 한 시 기						이 유 식 이 시 작 시 기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한년 을 까 기	기 타	Total	6M전	9M경	12M경	15M 이후	Total
도 시	55	34	5	3	3	100	17	53	20	10	100
어 촌	26	34	30	6	4	100	16	46	22	16	100
농 촌	18	29	40	10	3	100	21	33	27	19	100

Note; %와 인원이 동인함.

식하고 있으나 자녀에게 맞춘 예방주사의 종류와 언제 맞추었는지에 대한 기억여부를 조사하여 본 결과 <표 11>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에서 종류는 기억하나 날짜를 모르겠다는 으뜸인 58%이고 종류 기억안난다가 25%, 기억한다가 13%의 순으로 되었다.

(표 11) 자녀에게 접종한 예방주사에 대한 기억 여부
N(%)

도시 농어촌 합계	
종류날과 기억한다	38(13)
종류 기억하나 날짜 모른다	173(58)
종류 기억 안난다	76(25)
안 맞추었다	13(4)
Total	300(100)

(3) 영유아 이유식이 및 시기

건강한 유아에게는 적어도 6개월부터 이유식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여 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성분을 주도록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여 본 결과 <표 12>에서와 같이 모유를 떼는데 대한 가장 높은 시기가 도시는 1년 이내로 55%, 어촌은 1, 2년 이내인 34%, 농촌은 3년 이내인 40%로 나타났다.

이유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가장 높은 때가 모두 9개월로 도시 53%, 어촌 46%, 농촌 33%로 나타났다. 가 하면 반대로 농촌은 6개월전인 21%로 도시 어촌보다 높을 때 이러한 원인은 모유가 충분한 사람은 안먹을 때까지 계속 먹이는가 하면 부족한 부인은 분유대신 쌀죽같은 것으로 대신하여 이유시기가 일찍 되는 것이다.

(4) 분만에 대한 지식 관계

분만에 대한 조사로 애기는 어디에서 낳는 것

이 좋으나에서 <표 13>과 같이 가장 높은 율이 자기집으로 도시 53% 어촌 67% 농촌 81%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병원으로 도시 42%, 어촌 30% 농촌 11%의 순으로 되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부터 내려온 가족 제도와 관련이 있겠다 보겠는데 김^씨이 경기도에서 조사한 병원에서 낳는다는 64.1% 보다 훨씬 낮고 허^씨가 조사한 서울의 가정분만 75.3%와는 비슷하다.

(표 13) 분 만 장 소

	N(%)			Total
	도시	어촌	농촌	
자 기 집	53	67	81	201(67)
친 정	5	3	6	14(5)
병 원	42	30	11	83(27)
기 타			2	2(1)
Total	100	100	100	300(100)

분만전에 진찰을 받아야 하느냐에서 <표 14>와 같이 도시 농어촌 전부 받아야 한다고 대답하는 율이 62%로 가장 높고 모르겠다가 28%, 아니오가 10%로 나타났다.

(표 14) 분만전 진찰 여부

	N(%)	
	도시 농어촌 합계	
받아야 한다	188(62)	
아니오	29(10)	
모르겠다	83(28)	

(5) 결핵에 대한 인식 정도

폐결핵 환자가 우리나라에 100~200만명이나 되며 매년 10만명의 신환자가 생기는 무서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시 농어촌 합쳐서 <표 15>와 같이

- ① 결핵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인가에 옳은 답이 75%이고
- ② 결핵은 유전된다고 생각합니까 에서 옳은 답이 31%이고
- ③ 결핵은 어른한테만 걸립니까에서 옳은 답이 58%인데
여기에서 김^씨이 조사한 지역인 경기도 고양군에서 유전된다 생각하느냐에 옳은 답이 91%로

(3) 허정도, 모생보고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실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 조사한 율보다 훨씬 높다고 보겠다.

(표 15) 결핵에 대한 인식

	N(%)			
	옳은답	틀린답	모르겠다	Total
결핵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인가	224(75)	25(8)	51(17)	300(100)
결핵은 유전된다고 생각하느냐	92(31)	160(53)	48(16)	300(100)
결핵은 어른한테만 걸립니까	175(58)	*97(32)	28(10)	300(100)

Note; *어린아이에 걸린다(37명)
어른한테만 걸린다(38명)
노인한테 걸린다(22명)

(6) 행주에 대한 지식 판제

행주는 매일같이 우리 식생활속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주에 18m 대한 세균수는 무려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데 행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6>에서와 같이 행주는 삶아야 하는 질의에 90%가 옳은 답을 알고 3%가 틀렸고 7%가 모르겠다 하였다.

(표 16) 행주 소독에 대한 인식

	N(%)		
	옳은답	틀린답	모르겠다
행주는 삶아야 하나	269(90)	8(3)	23(7)

행주를 삶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 간격으로 삶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1주 한번 이상이 52%였고 2주에 한번 정도가 19% 한달에 한번 정도가 4%로 나타났다. 안삶는다는 24%나 나타났다.

(표 17) 행주를 삶는 간격에 대한 조사

	N(%)			
	도시	어촌	농촌	Total
1주 한번 정도	72	50	34	156(52)
2주 한번 정도	15		20	56(19)
한달에 한번 정도	5	21	4	13(4)
한달 이상에 한번 정도	1	4	2	4(1)
안 삶는다	8	23	40	71(24)
Total	100	100	100	300(100)

Note; %기계가 안된 것은 인원과 동일함.

(7) 치아 건강에 대한 인식

치아건강에 대한 것으로 충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본 결과 <표 18>에서와 같이 치아는 몇개나 충치가 먹었느냐에서 두개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시 38% 어촌과 농촌이 각각 36%로 나왔고 그 다음이 4개 정도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충치가 없다는 것이 도시 농촌보다 어촌이 더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식생활과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표 18〉 충치에 대한 조사

	%		
	도 시	어 촌	농 촌
2개 이내	38	36	36
4개 이내	27	24	26
6개 이내	14	10	13
7개 이상	13	11	14
없 다	8	19	11
Total	100	100	100

Note; 인원과 %가 동일함.

충치가 언제부터 생겼느냐에서 <표 19>와 같이 가장 높은 율이 30세 이전으로 도시가 41%, 어촌 35%인데 비해 농촌은 20세 이전으로 39%나 된다.

〈표 19〉 충치가 생긴 시기

	N(%)		
	도 시	어 촌	농 촌
10세 이전	3(3)	13(16)	6(8)
20세 이전	31(34)	16(20)	35(39)
30세 이전	38(41)	28(35)	24(27)
30세 이후	20(22)	24(29)	24(27)
Total	92(100)	81(100)	89(100)

IV. 총괄 및 결론

본 조사로서 도시 농어촌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도시 농어촌의 건강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찾아내어 가급적 해결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며 최종의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국가발전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

1) 조사지역의 일반적 특성

(1) 조사지역인 강릉시와 명주군중에서 강릉시는 시내에 속하는 7개 동을 도시로 정하고 해변가에 인접된 3개 동을 어촌으로 정하였고 명주군 중에서는 2개 면을 선택해 각각 100명으로 전체 300명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기일은 73년 6월 5일~30일 까지로 25일을 조사 기일로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경제상태는 상이 3% 중이 72%, 하가 25%로 거의가 중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2) 건강 상태

(1) 조사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전체에서 18%이고 보통이다가 47%, 약하다가 22%, “병중이다가 13%이며 이중 위장장애가 4.3%, 빈혈 4%의 순으로 되어 있다.

(2) 건강한 사람도 포함하여 어느 부위가 가장 아프냐에서 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도시 30%, 어촌 33%, 농촌 30%로 나타났다.

3) 치료 여부

(1) 치료 방법으로 도시와 어촌은 약국으로 도시 41%, 어촌 39%이다 농촌은 집에서로서 49%나 차지한다.

(2)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서 돈이 없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시 66%, 어촌 72%, 농촌 81%이다.

(3) 치료를 받는 경우 매우 아파야 병원에 간다가 우위이나 도시는 약간 아파도 병원에 간다가 26%이고 어촌은 13%, 농촌은 11%를 나타냈다.

(4) 치료의 방법으로 절을 친다가 도시 3%, 어촌 12% 농촌 7%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편견은 보건계몽으로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라 본다.

4) 보건소

(1) 보건소의 여러가지 기능중 특히 부인에게 필요한 지식인 예방주사 가족계획 결핵사업 이 세가지에 대한 지식을 조사 하여본 결과 세가지 모두 관리 한다는 정답이 도시 64%, 어촌 35%, 농촌 27%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 예방주사만 맞춘다로 도시 17%, 어촌 35%, 농촌 51%로 조사 되었다.

(2) 보건소를 알게된 동기를 보면 가장 높은 율이 이웃사람으로 도시 27% 어촌 30% 농촌 36%로 나타났으며 보건소 이용도는 도시 어촌보다 농촌이 더 높다.

현재 (73년 10월) 강원도는 19개 시군에서 107개 읍면을 갖고 있는데 이중 무의면은 9개 면인 8개 지역으로 주민의 건강 복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급히 의료인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겠다.

5) 예방주사

(1) 예방주사에 대한 필요성은 거의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전체에서 87%로 나타났으나 자녀에게 접종한 율은 중두 26%, BCG 22%, 소아마비 21%의 순이다.

그리고 접종한 종류는 기억하나 언제 맞추었는지 모른다가 우위인 58%이고 그 다음으로 종류 기억이 안난다가 25%이다.

또한 맞추지 않았다는 부인이 4%나 조사되었다.

6) 영유아 식이

(1) 모유를 떼는 적당한 시기로 도시는 일년 이내인 55%이고 어촌은 1, 2년 이내인 34%, 농촌은 3년이내인 40%로 조사 되었다.

(2) 이유식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느냐에서 모두 9개월경으로 도시 53%, 어촌 46%, 농촌 33%를 차지 했다.

7) 분 만

분만 장소로서 가장 높은 것이 자기집으로 도시 53%, 어촌 67%, 농촌 81%로 나타났다.

또한 분만전에 진찰을 받아야 하느냐에서 전체에서 받아야 한다가 62%, 모르겠다가 28% 아오니가 10%이다.

이러한 것은 분만전의 진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적어도 분만 전에 수회 정도는 진찰을 받도록 계몽 해야 하겠다.

8) 결핵 보건

결핵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인가에서 옳은 답이 75%이고 유전되느냐에서 옳은 답이 31%, 어촌한테만 걸린다가 58%로 나타났다.

전체 주민중 현재 결핵을 앓고 있다는 부인이 5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 결핵 이환율인 5.1%보다 성적이 좋다고 본다.

9) 행주에 대한 인식

행주는 살아야하냐에서 정답이 90%이고 틀린 답이 3%, 모르겠다가 7%인데 1주에 한번 이상 살다가 도시 72%, 어촌 50%, 농촌 34%이고 안살다가 도시 8%, 어촌 23%, 농촌 40%나 나타났다.

10) 치아 보건

충치가 없는 부인은 도시 8%, 어촌 19%, 농촌 11%로 어촌이 높으며 숫자는 2개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시 38%, 어촌 36%, 농촌 36%를 차지 했다.

또한 충치가 언제부터 생겼느냐에서 도시 농촌은 20세 이전으로 도시 34%, 농촌 39%이나 어촌은 30세 이전으로 35%를 차지했다.

이상에서 도시 어촌 농촌으로 구분은 하였으나 조사지역에서 어촌이 농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도 농촌보다 시내와 교통이 가까운 곳이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계몽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겠다.

참고 문헌

1. 김보일의 2인, 보건간호 실습계획을 위한 실례 조사, 간호학회지, Vo. 1, No. 1, 1970, pp. 3~17.
2. 이재희, 일부 농촌지역의 결핵 치료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Vo. 1, No. 1, 1970, pp. 85~94.
3. 허정도, 모성 보건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실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1968.
4. 노인규의 6인, 농촌 영아의 예방접종 실태조사. 공중보건잡지, Vo. 6, No. 2, 1969, pp. 210~219.
5. 김성실, 강원도 농어촌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의 역학적 고찰, 간호학회지, Vo. 2, No. 1, 1971, pp. 73~85.
6. 김호규, 어린이의 보건 생활지도, 보건세계, Vo. 18, No. 5, 1971, pp. 26~27.
7. 손정선, 결핵 예방과 주부의 역할, 보건세계, Vo. 7, No. 11, 1970, pp. 12~13.
8. 이금전, 보건간호학, 대한간호협회, 수문사, 서울, 1972.
9. 김옥실, 최신보건간호학, 수문사, 서울, 1972.
10. 박희정, 소아과 간호학, 수문사, 서울, 1965.